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 ①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 ② 본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 ③ 보호자용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ccess/use/moving
ATAC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ATAC Amen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HEADLINE

뉴스 7P

김정록 의원,
새누리당 중
앙장애인위원
장에 당선



특집 12P

‘사랑 나눔 대축제’,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인물 14P

“지체장애, 체육교사 되는데
문제없어요”



건강 19P

정월대보름, 봄의 기운을 먹다



지장협, 설 명절 맞아 사랑 나눔 실천

장애인 무료 급식 및 한방진료 서비스 실시

보육시설 · 중증장애인 가정에 후원물품 전달



장애인 무료 급식 서비스 전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장협 임직원과 텔런트 윤용현 씨,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종성 관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나섰다.

지장협은 2월 7일 노원구 일대에서 지장협 산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북부장복)과 함께 ‘사랑 나눔 대축제’를 진행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지장협 임직원과 북부장복 직원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북부장복에서 장애인 및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 급식 서비스와 설맞이 떡국 떡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장협 산하 새보람 요양병원의 지원 아래 겨울철 건강관리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무료 한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노원구 일대 중증장애인 가정 100가구와 마포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삼동소년촌을 방문해 방한용품과 생활필수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록 중앙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노인, 보육시설 아동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나아가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중증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경제 사정도 어려워 명절 때는 마음 한 편이 더욱 허전했는데 올 해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텔런트 윤용현 씨가 함께해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했다.

〈p12 계속〉

발행인 칼럼

“새 정부 출범, 장애인 행복시대를 향해...”



존경하는 새보람 독자 여러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입니다.

매년 무한한 설렘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올해는 그 느낌이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공약 이행 여부에 많은 관

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민생이 더욱 어려워진 탓인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제도 및 정책 마련을 희망하며 새 정부의 행보에 더욱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계 핫이슈로 떠올랐던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장애인 주거권과 건강권 보장,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장애계가 요구했던 공약의 대부분을 수용한 것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인 저는 지장협 중앙회장과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고 미흡한 장애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이에 저는 그동안 장애인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힘쓰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활동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 이 현안들이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는 소명의식이 더욱 큼니다.

수많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

한 것은 ‘실천’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장애인들의 뜻을 헤아리고 시혜적인 선심성 정책 보다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 개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민생대통령을 강조하며 복지정책 추진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모두가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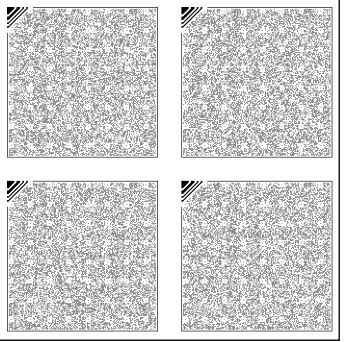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장애인 모두가 기분 좋은 변화의 주역이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 행복 시대를 열어나 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소망합니다.

중앙회장 **김정록**

◆ 김정록 중앙회장 동정(1월 16일~2월 15일) ◆

월 / 일	행 사 명	장 소
1/17(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신년인사회 치사	양평 대명콘도
1/22(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축하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1/23(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제약산업육성지원간담회’	국회본청 의원식당
1/24(목)	2013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광주광역시 홀리데이인호텔
1/29(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	평창
2/7(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랑의 나눔 대축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사무총괄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3년 시·도지회 사무총괄자 직무교육’



‘지장협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김정록 중앙회장.



2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열린 ‘2013년 시·도지회 사무총괄자 직무교육’.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2월 4일부터 5일까지 충남 보령시 비체 팰리스에서 ‘2013년 시·도지회 사무총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장협 시·도지회 사무총괄자 26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협회 실무 책임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지장협 김정록 중앙

회장의 ‘지장협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특별강연과 김태호 사무총장의 지장협 전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장협 정재이 법인행정팀장의 ‘예산·결산 회계관리’,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의 ‘장애인 복지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실무 교육도 실시됐다.

아울러 교육 참가자들은 분임토

의를 통해 협회 및 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록 중앙회장은 인사말 및 특별강연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장협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의 강의모습.



분임토의에 참가하고 있는 교육 참가자들.



분임토의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교육 참가자들.

‘스마트한 지하철 정보 알리미’ 무료 배포

지하철역 인근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 제공



부산협회는 ‘스마트한 지하철 정보 알리미 핸드북’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광표, 이하 부산협회)가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시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하철 정보 알리미 핸드북’을 제작·배포한다.

‘스마트한 지하철 정보 알리미 핸드북’은 지하철역 인근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공공시설, 의료시설, 음식점, 횡단보도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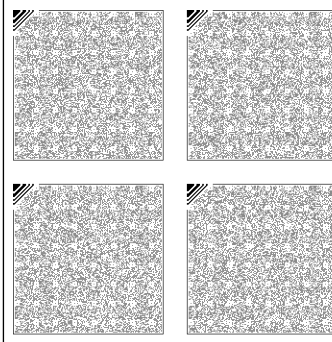
또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지

하철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핸드북은 부산협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16개 구·군 지회에서 무료로 수령가능하며 각종 장애인 행사를 통해서도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부산협회 김광표 협회장은 “핸드북을 통해 제공되는 최신 정보가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제약을 받

소리로 읽는 새보람



는 모든 분들에게 편리한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핸드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협회 홈페이지(<http://www.bappd.or.kr>)와 전화문의(☎051-465-885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핸드북 제작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부산교통공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 개최

실무직원 대상 교육 및 신년인사회 실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문경 STX리조트에서 ‘2013년 제1차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를 개최했다.

경북협회는 민원·편의시

설지원센터 실무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매년 6회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를 열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주)신원 고무소재 이두봉 사장이 ‘멋지게 사는 삶’, 해피 로드 컨설팅 임수희 대표가 ‘정서적 소통을

통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이번 연수회에서는 시·군 지회 신년인사회가 함께 진행됐다.

경북협회 장재권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새해에도 열정을 갖고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사회복지사가



경북협회가 개최한 ‘2013년 제1차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 모습.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회 첫 날 열린 개회식에는 문경시 김재택

부시장,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박종훈 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축진단 워크숍’ 열려

2013년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모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는 1월 17일부터 18

일까지 1박 2일 동안 양평 대명콘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축진단(이하 도민축진단)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31개 시·군 도민축진단 요원 14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실태조사, 장애인전용주차

역 위반차량 민원신고 등의 활성화 방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운영방안 등 다

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도민축진단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민축진단은 장애로 인해 공공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실태조사, 종합상담실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신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협회가 개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축진단 상반기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42호 2013년 2월 20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경선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모두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행사 실시



‘장후회’는 1월 25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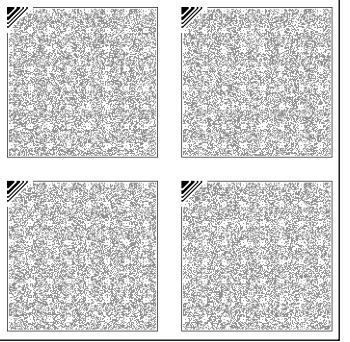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인 장후회(회장 최영환)가 설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장후회는 1월 25일 조연회, 대원라이온스클럽과 함께 떡국 떡 1000kg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장후회 최영환 회장은 “설 명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명절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모든 가정 이 풍요로운 설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대전지체장애인협회(회장 윤석연)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후회는 매년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라면 후원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구지회(지회장 정인식)와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보냈다.

인천협회 연수구지회는 2월 7일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라면 200박스를 후원받고 이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인천협회 연수구지회 정인식 지회장은 “추운 겨울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장애인들이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가 2월 7일 인천협회 연수구지회에 라면 200박스를 후원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박종길 본부장은 “앞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약속했다.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실시

포스코ICT와 장애인 가정에 쌀 전달



성남장북과 포스코ICT는 1월 30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상규, 이하 성남장북)은 포스코ICT와 함께 설을 맞아 1월 30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성남장북과 포스코ICT 직원들은 이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지역 저소득 장애인 가

박종훈 신임 관장 취임식 진행

“장애인 섬기는 자세로 일 할 것”



문경장북 박종훈 신임 관장의 취임사.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문경장북) 박종훈 신임 관장 취임식이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탁 대학 문경시의회의장, 김재탁 문경시 부시장, 현한근 문경시 문화원장 등을 비롯한 지역기관장 및 단체장, 장애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경장북에서 진행됐다.

박종훈 관장은 취임사에

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중심을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할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장애인을 섬기는 자세로 복지관을 이끌어 가겠다”며 “문경장북 복지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역기관 단체장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정 1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쌀을 전달받은 한 장애인은 “명절이 다가오면 유난히 더 적막감을 느끼는데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마음의 공허함을 덜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기억하고

을 한해도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포스코ICT 안윤 상무는 “올해도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나눔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해 작은 정성 모아

온양로타리클럽, 후원물품 지원



아산장북은 2월 4일 온양로타리클럽의 지원 아래 장애인 가정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과 온양로타리클럽(회장 지준선)은 설 명절을 맞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산장북은 2월 4일 온양로타리클럽(회장 지준선)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쌀, 라면,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지원받고 이를 장애인 가정에 전달했다.

온양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지난해 아산장북을 통한 장애인

지원활동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올해도 또 회원들과 힘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온양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정성 덕분에 지역장애인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후원과 봉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새해 맞이 기념 공연 열려

노래 공연 및 토크콘서트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에서는 1월 11일 정읍지역 주민과 장애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기념 공연이 열렸다.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읍지역 향토가수이자 JBC 전북방송 MC인 김민수 씨의 진행 아래 지역 가수들의 트로트 공연과 이야기 마당이 펼쳐졌다.

정읍장북 박종형 관장은 “장애인들이 노래와 함께 흥겹게 새해를 시작해 좋다”며 “장애인 모두 행복이 넘치는 한 해를 보



1월 11일 정읍장북에서 열린 새해맞이 기념공연 모습.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우리동네 큰잔치’라는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램으로 편성돼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재능기부로

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웃음치료 · 노래 공연 펼쳐져



대경기능인봉사회 회원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김천장북)에서는 1월 23일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아카데미에서 건강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대경기능인봉사회(회장 이분순)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날 복지관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웃음치

료와 함께 가요 및 전통 민요 공연을 선보였다.

김천장북 박선하 관장은 “각자의 재능도 나누면 값진 선물이 된다”며 “아름다운 재능기부로 지역장애인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준 대경기능인봉사회 회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경기능인봉사회는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옷 수선, 이·미용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패밀리가 떴다 시즌 4’ 참가자 모집

지적 · 자폐성 장애아동 가족 역량강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성)이 ‘패밀리가 떴다 시즌 4’ 참가자를 모집한다.

‘패밀리가 떴다’는 지적 · 자폐성 장애아동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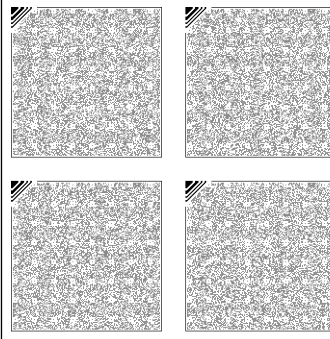
활동, 부모상담 및 교육, 가족학 예회 등으로 꾸며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지적 · 자폐성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서 비장애 형제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2월 26일까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팀(☎02-2092-1742)으로 하면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

김정록 의원 당선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된 김정록 의원.

“기대에 어긋남 없이 장애인 위해 힘쓸 것”

새누리당 중앙장애인위원장에 김정록 의원이 당선됐다.

새누리당이 ‘중앙장애인위원장 및 장애인상임전국위원’ 선출을 위해 1월 22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은 결과 김정록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김정록 의원이 1월 29일 실시될 예정이던 온라인 투표 없이 중앙장애인위원장으로 결정됐다.

김정록 의원은 당선사를 통해 “중앙장애인위원장 역할을 믿고 맡겨 주신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한 분 한 분을 볼 때 마다 장애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2월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와 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인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행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296개 복지사업 한 눈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월 18일 개통했다.

지난해 8월 11개 부처 189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후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완전 개통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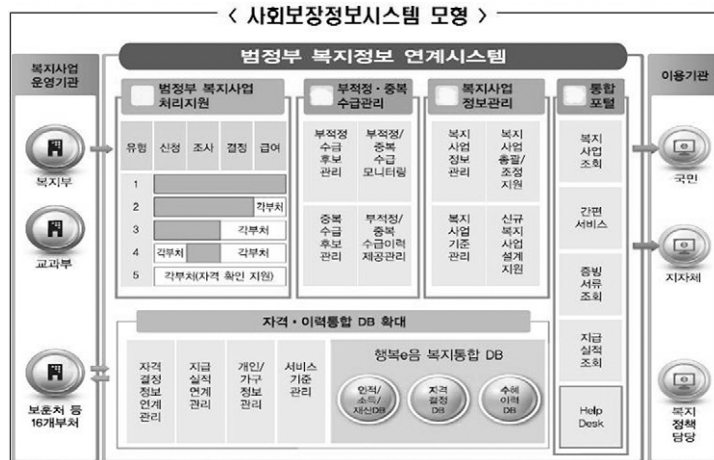
이에 따라 국민들은 보건, 일자리, 교육 등 전 부처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상담·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처는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공적자료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각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은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giro.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www.wish.go.kr)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재정을 효율화하는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기반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모형. ©보건복지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로 확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복지로’ 사칭한 악성 앱 주의하세요!

“요청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받았을 땐 신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육 및 양육수당 등의 온라인 신청창구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사칭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악성 앱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월 10일 복지로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관련 문자 메시지를 차단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복지로에서는 신청인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처리결과를 SMS로 받아 보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에게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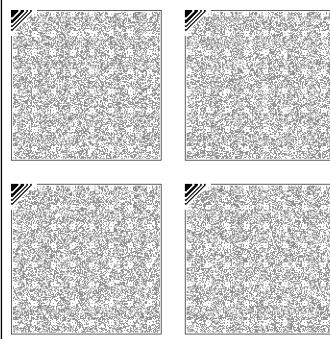
문자서비스 시에도 처리 단계별로 신청서 진행내용만 알려 줄 뿐 특정 웹으로의 링크

나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이 복지로에 문자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받았거나 특정한 링크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및 설치 등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

을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지 말고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국번없이 118)이나 복지로(www.bokjiro.go.kr)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학생 비닐로 의자에 묶고, 머리 때리고...

한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체벌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소재 국립특수학교인 A학교에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지속적 폭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작년 6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학교에서는 2007년부터 전·현직 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하거나 수업시간 중 교실 외 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사는 장애학생이 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고 과도한 행동

국립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에 가혹행위

해당 학교 교사 엄중 주의 조치 권고

을 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두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무재질의 막대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학부모에게 면세양주 구입방법과 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사들도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가해

교사의 타학교 전보를 추진하거나 공식 조사 없이 해당 교사가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인권위는 “이는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체벌 행위이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동법 제13조의 장애인의 수업참여 배제로 인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장이 교사들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의무에 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 및 관할 교육감에게 체벌교사를 엄중 주의 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강화,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 개발·보급,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중재 제도’ 도입, ‘개별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지원기준 완화 및 복지자금 대출용도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가구 선정 기준 완화, 복지자금 대출 재원 및 용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대상가구로 선정할

때 적용되는 ‘만 22세 미만의 취학중 자녀’ 기준에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연장시켜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구 선정 기준이 ‘취학 자녀 나이 22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이면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고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는 경우에도 보호대상가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복지자금의 대출재원을 늘리고 현재 창업 및 사업운용에만 가능한 대출용도를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실제 규정에는 사업자금이거나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을 위해 저금리로 복지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지침에는 대출 가능 용도가 창업 및 사업운용 용도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경제적 어려움에 자녀양육

부담까지 가중되어 이증고를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부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인상 및 보호대상가구 확대를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이번 권고안과 더불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22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작품현상공모전’

3월 12일까지 참가 신청 및 작품 제출

‘제22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작품현상공모전’을 개최한다.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장애인 고용’이며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환경 및 실내디자인 등 총 4개 분야의 작품을 접수받는다.

에세이 부문은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의 이야기,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의 이야기,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장애인의 이야기 등을 기술하면 된다.

인쇄매체디자인과 사진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희망찬 세상,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고용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된다.

올해 추가된 환경 및 실내디자

인 부문은 장애인 일터의 편의시설 디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작품을 준비하면 된다.

참가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참가 희망자는 3월 12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keadcontest.co.kr)를 통해 참가 신청과 함께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3월 28일 공모전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부문 최우수작(1편)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작(1편)에는 공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작(5편)에는 공단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환경 및 실내디자인 부문 최우수작(1편)에는 공단이사장상과 상금 250만원, 우수작(2편)에는 공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장려작(3편)에는 공단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시상된다.



‘제22회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작품현상공모전’ 포스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교통복지 수준은?

서울이 최고...광주가 가장 미흡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가 1월 17일 발표한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의 교통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7개 특별시·광역

시의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10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전문가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교통복지지수 90.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73.6점으로 2위에 올랐고 부산 65.5점, 대전 63.6점, 대

구 58.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54.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울산은 도시철도 시설이 없어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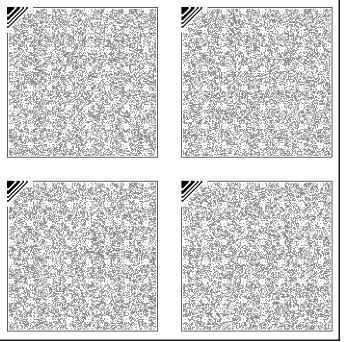
도시철도를 미반영한 교통복지 수준에서는 인천이 8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도시철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서울은 83.1점, 대전 62.7점, 부산 61.9점, 울산 59.3점, 대구 59점, 광주 53.2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광주광역시시는 2011년에도 교통복지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미흡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은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 집수리 해준다!

3월 29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집수리 서비스에 나선다.

서울시는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저소득 장애인 가구 집수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는 목발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가구의 경우 건물 주출입구의 계단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보조손잡이 및 음성인지 가능 초인종을,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화장실의 문턱제거와 안전손잡이 설치, 변기높이조정, 세면대 배치 조정, 문폭 확장 등도 실시한다.

집수리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급~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라면 어느 가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 희망 가구는 3월 29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장애유형과 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올해는 특히 여성장애인 및

10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가산점을 주고 장기거주 가능성이 높은 임대아파트도 시범사업으로 5% 배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고, 이를 통해 사회활동에도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철산역 이용 쉬워진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대폭 늘려



광명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광명시청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대폭 늘어난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1월 29일 광명시청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7호선 철산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철산역 4번 출구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광명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16억원씩 부담한다.

광명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4년 초 착공해 2015년 6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철산상업지구측 철산역 1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1월부터 시작했으며 2014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석치순 기술본부장은 “늦었지만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 장애인 편의시설, 자가진단으로 알아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 등을 사용자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작했다.

편의시설 자가진단 온라인 서비스(이하 자가진단 서비스)는 해당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시설 설치 범위와 정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파악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그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법률 및 기준 등에 대한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 및 설계기준 등 관련 정보가 부

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도입한 자가진단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결하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설명해 누구나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편의시설 자가진단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을 준수해 시각장애인도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자가진단 서비스에 포함된 자가진단 항목은 건물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화장실, 대변기 및 소변기 등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대상 시설은 공장시설로 한정시켰으며 추후 대상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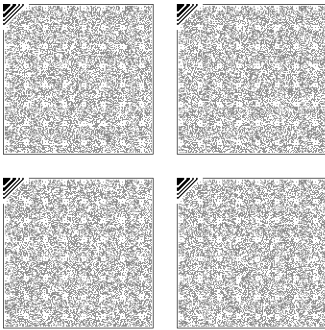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시작한 ‘the 편한 일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가진단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높아지고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 접속하면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장의 편의시설의 현 실태를 알 수 있다.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편의시설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는 가까운 공단 지사(☎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아시아 최대 보조공학 국제회의 경기도에서!

‘i-CREATe 2013’ …8월 고양 킨텍스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조공학 분야의 아시아 최고 권위 국제회의인 ‘i-CREATe 201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Rehabilitation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이 경기도에서 열리게 됐다.

경기관광공사, 킨텍스,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로 구성된 ‘i-CREATe 2013’ 공동 유치단이 지난해 7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개최된 제19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인도와의 경합 끝에 최종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i-CREATe 2013’은 킨텍스 주관전시회 ‘SENDEX 2013(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과 함께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동시 개최된다.

태국과 싱가포르의 보조공학기술센터의 공동주관으로 2007년 시작된 본 회의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방콕, 상하이 등 아시아 각지에서 매년 순회 개최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공학 및 보조공학 관련 학술행사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7회를 맞이하는 이번 한국 대회에는 태국 공주 ‘마하 차크리 시린톤’이 주빈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논문 심사, 강연, 토론, 학생공모전 등 전문 회의 및 전시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한국 개최로 인해 세계 최고 권위의 보조공학 및 재활공학 관련 석학, 연구진, 바이어 600여명이 방한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이번 회의 유치에 대하여 “경기도의 수준 높은 재활공학 서비스 체계, KINTEX의 우수한 회의 시설, 경기컨벤션뷰로의 열정적인 유지활동의 결과”라며 “이번 컨벤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및 장애인 보조기구 산업이 세계와 겨룰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조

직위원회 (태국 NECTEC, 싱가포르 START Centre)와 경기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 경기관광공사, 킨텍스 관계자 30여명은 2월 4일 고양 킨텍스에서 ‘i-CREATe 2013 성공개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시각장애인 위한 첫 촉각만화책 ‘안녕, 딱공?’

시각장애 특수학교 및 장애인단체 등에 배부

시각장애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그림과 대화 말풍선으로 구성된 만화책(카툰)을 접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정책 웹툰 ‘안녕, 딱공?’ 연재 2주년을 맞아 이를 촉각만화책으로 재편해 1월 21일 출간했다.

정책 웹툰 ‘안녕, 딱공?’은 실존하는 시각장애 어린이를 모티브로 한 ‘딱공’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는 극복 가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촉각만화 ‘손끝으로 읽는 만화 - 안녕, 딱공?’ ©보건복지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이번 촉각만화책은 지난 복지부 뉴스레터와 블로그에

총 103회 연재됐던 것 중 시각장애 어린이, 청소년에게 보다 재미와 공감을 줄 수 있는 7편을 발췌해 재구성한 것이다.

촉각만화 ‘안녕, 딱공?’은 말풍선을 통해 등장인물의 대화와 감정을 전달하고 인물, 배경, 상황 묘사를 통해 간결한 이야기를 전하는 만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만화의 표현 기법이 촉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의 질감과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제작에 참여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존 대부분의 촉각도서는 그림과 그림을 설명하는 글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제작을 위해 참고할만한 국내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며 “만화에 사용되는 표현기법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맹학교 학생체험 등의 현장 검증과정과 입체효과를 위한 특수가공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문화적 소산에 대한 경험을 확장해 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촉각만화 ‘손끝으로 읽는 만화 - 안녕, 딱공?’은 1월 중순부터 시각장애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300여 곳에 우선 배부됐다.

서울시교육청, 행복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영아에게도 특수교육기회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그동안 중심이 되어 왔던 장애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영아 교육과 장애가족지원 프로그램,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1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영아 담당교사를 배치하고 장애영아 학급을 운영

함으로써 장애영아에게도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가족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센터별로 심리상담사를 고용해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까지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육감 공약사항의 하나인 장애학생 진로·직업교

육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장애학생 초등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분청 1개소와 지역교육청 11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장학관(사), 특수교사, 전담인력을 포함한 총 113명이 12,847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신입 뇌성마비장애인 장학생 선발

2월 28일까지 한국뇌성마비복지회로 서류 접수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대학에 합격한 2013학년도 대학신입 뇌성마비장애인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뇌성마비장애학생들의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이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13학년도 대학에 입학하는 뇌성마비장애인 신입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

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만 해당된다.

서류심사 및 상담조사를 통해 총 2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대학 입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2월 28일까지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복지카드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한국뇌성마비복지회관 사회재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성황리에 개최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2월 5일 강원 평창 용평동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8일 간의 일정을 마쳤다.

지적장애인 8명으로 구성된 소리샘벨콰이어팀의 핸드벨 연주로 시작된 폐막식에서는 지적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가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걸그룹 원더걸스와 에프엑스 등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폐막식의 하이라이트로 피겨여왕 김연아와 피겨전설 미셸완이 머라이어 캐리의 발라드 곡 ‘히어로’에 맞춰 합동 아이스쇼를 펼쳐 평창의 아름다운 밤을 수놓았다.

이날 폐막식에서 나경원 조직위원장은 “2년 전 0%에 가깝던 스페셜올림픽 인지도가 이번 대회를 통해 70%를 넘어섰다”며 “스페셜올림픽이 이제는 올림픽 선수들만의 축제가 아닌 국민의 축제, 온 세계의 축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 열려 역대 최다 관람객...성공적 개최 평가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이 8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2월 5일 폐막했다.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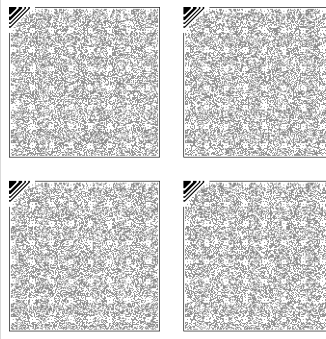
이어 “이제부터는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변화, 예산의 투입,

글로벌 개발 서밋으로 만들어진 평창선언의 실천 등도 중요하지만 지적장애인을 향한 관심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29일부터 2월 5일 까지 8일 동안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소리로 읽는 새보람



106개국 약 2,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올림픽은 입장객 수가 역대 대회보다 월등히 많은 18만 명을 넘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는 경기 외에 전 세계 정상들이 지적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지원개선을 논의하는 글로벌 개발 서밋과 세계 청소년 리더들이 함께하는 세계 청소년 회담, 글로벌 스타들과 지적장애인들이 하나가 되어 경기를 갖는 유니파이드 프로그램 등 의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스페셜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운영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첨단IT 결합한 덕수궁 안내서비스 오픈 청각장애인 위한 수화동영상 서비스도 제공

KT(회장 이석재)와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보다 스마트한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문화재에 첨단 IT기술을 적용한 관광안내서비스 ‘내 손안의 덕수궁’ 앱을 1월 24일 출시했다.

‘내 손안의 덕수궁’ 앱은 지

도, 사진, 설명자료 등 1,634개의 덕수궁 관련 안내 자료를 증강현실기술과 3D콘텐츠 등 첨단 IT기술로 구현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국내 및 국외 관광객들이 보다 흥미롭고 알차게 덕수궁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KT와 문화재청은 해당 앱 구

현을 위해 덕수궁과 정동의 130개 관심 문화재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합관리플랫폼 및 덕수궁 내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했다.

앱의 ‘덕수궁 나들이’ 메뉴를 구동하면 문화해설사 캐릭터가

등장해 덕수궁과 정동 문화재에 대해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 설명해주고 있어 문화재 안에 숨겨진 근대조선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3D콘텐츠로 제작된 덕수궁 문화재들을 직접 터치하며 공간감을 체험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기술로 덕수궁 내 해당 문화재를 찾아가는 길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AR(증강현실, Augment Reality)과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메뉴에서는 화재를 겪기 전의 중화전(中和殿), 지금은 없

어진 돈덕전(惇德殿) 등 훼손 또는 소멸한 덕수궁 건물 13동을 전문가 고증을 거쳐 3D 이미지로 재현해 현존건물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덕수궁과 정동의 숙박·음식·교통 등 주변관광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언어와 수화 동영상을 지원해 국내외 관광객들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유용하다.

본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OS 스마트폰에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3월 14일 개봉하는 ‘터치 오브 라이트’ 포스터, ©메인타이틀픽처스

천재 피아니스트의 감동실화 ‘터치 오브 라이트’

실제 주인공이 직접 연기...3월 14일 개봉

꿈을 향해 도전해나가는 한 시각장애인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터치 오브 라이트’가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

으고 있다.

‘터치 오브 라이트’는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세상과 소통하며 피아니스트의 꿈

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황유시앙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지난해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주인공인 황유시앙이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연기해 리얼리티를 더했다.

지난 1월 실시된 모니터 사회에서는 평점 9.25점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소리로 세상을 보는 천재 피아니스트의 감동실화 ‘터치 오브 라이트’는 오는 3월 14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랑 나눔 대축제’, 그 훈훈한 현장 속으로!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나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월 7일 노원구 일대에서 열린 ‘사랑 나눔 대축제’ 현장의 이모저모를 사진에 담아봤다.



지장협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장협 중앙회 김태호 사무총장이 장애인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연합뉴스TV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랑 나눔 대축제’에서 진행된 새보람요양병원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지장협 직원이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장협 직원들이 장애인 무료 급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과 탤런트 윤용현 씨가 장애인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장애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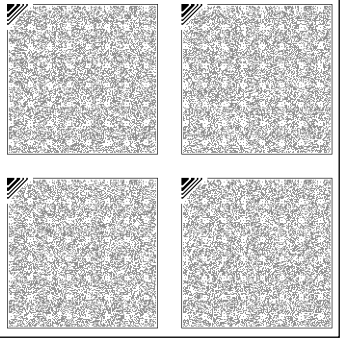


탤런트 윤용현 씨가 지장협 직원들과 후원물품을 나르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삼동소년촌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새해 장애인 복지발전 위한 각오 다져

‘2013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김정록 중앙회장, 장애인과의 진심어린 소통 강조



김정록 중앙회장과 지장협 임원들이 올 한해 지장협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아 전국 지체 장애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3년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1월 24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13년 신년인사

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지장협은 매년 새해를 맞아 장애인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 및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고 있다.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 37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정록 중앙회장의 2013년 지장협 중점 사업 소개 및 지도자 리더십 특강, 지장협 산하 우수 협회와 시설의 성공사업 사례 발표, 신년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이날 “2013년 계사년(癸巳年)에는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장애인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올 한해 지장협의 소통 창구를 강화해 협회 회원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행사에 참석한 김정록 중앙회장(오른쪽), 이형석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가운데), 조호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왼쪽).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장협도 빠른 시대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며 “올 한해 지장협이 장애인 복지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 모두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인도 올 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전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에는 이형석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조호권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장애인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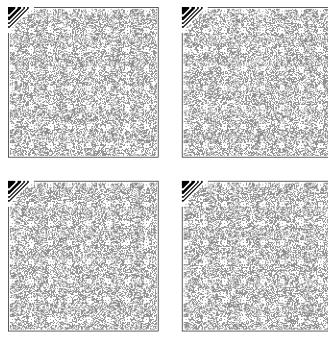


김정록 중앙회장이 특강을 펼치고 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전국의 지체장애인지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그는 "축구 시험 하나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경기 결과 보다는 열심히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 장애를 극복하기 까지

"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보다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장애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고충에 대한 그의 답변이다. 그도 평소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지만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가 체육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학교 교수님을 포함한 주위 사람 대부분이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 "실기시험을 보기 어렵지 않겠냐",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도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그가 "체육교사"라고 대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인다. 그는 "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주위의 이런 시선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기 생각에 대한 편견을 깨려고 노력한다면 장애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아직까지 여름에 반팔 입기가 꺼려지는 것을 보면 제 자신도 100%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며 수줍은 웃음을 보였다.



김인탁 교사와 축구클럽 학생들이 경기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체장애, 체육교사 되는데 문제없어요”

긍정의 힘으로 꿈 이뤄낸 김인탁 교사

2월 14일 중등학교 축구경기가 열리고 있는 한 운동장.

경기를 펼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 분주하게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 그는 바로 한쪽 팔이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올해로 교단에 선 지 2년째를 맞는 체육교사 김인탁 씨(30세)다.

몸이 불편한데 다른 과목도 아닌 체육교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위의 편견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그는 지난해 당당하게 꿈을 이뤄냈다.

특유의 긍정적 마인드로 꿈을 이뤄낸 그의 희망 스토리를 들어봤다.

■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

축산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김인탁 씨(30세). 그는 세 살 때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 여물을 자르는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해 왼쪽 팔 일부를 잃었다.

이 사고로 3급 장애판정을 받았지만 어린 시절 그는 여느 남자아이들과 다름없이 뛰어놀기 좋아하는 개구쟁이였다. 장애를 가진 그를 보고 놀려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위낙 활발한 성격이었던 그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과 당당하게 맞서며 본인의 장애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찾아온 사춘기.

남들과 조금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의



세 살 때 불의의 사고로 한 쪽 팔을 잃은 김인탁 교사의 어린시절.



지체장애를 딛고 중등학교 체육교사가 된 김인탁 교사가 축구클럽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식하기 시작했고 외향적이던 그의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그는 신체적 장애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인생의 전환점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어 치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일의 성공은 오늘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가 좋아하는 책 '마시멜로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을 하고 큰 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준 구절이기도 하다.

그는 이 구절을 읽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오랜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체육교사. 그는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로의 편입학을 준비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하기 힘든 농구 레이업 외에도 소프트볼 멀리던지기, 멀리뛰기 등의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편입학 시험에는 장애인전형이 따로 없어 비장애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주저 없이 도전했고 결국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

대학교를 졸업하며 그는 체육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중등교원 임용시험(장애인전형)에 응시했다. 주위에서는 "불가능 할지도 모르는데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하나"며 만류했다.

3차 실기시험 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실기 종목에 수영, 배구 등도 있는데 할 수 있겠냐"며 "종목을 바꾸거나 특별히 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에 그는 "한 손으로도 모두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대답했다. 물론 한 손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기까지는 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그는 자신 있게 시험에 임했고 2012년 3월 정식 중등 체육교사가 됐다.

그는 대학입학시험, 편입학시험, 교원임용 시험에서 모두 두 번의 도전을 통해 합격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며 한 번쯤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실패할 때 마다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사춘기 때 내성적인 성격으로 바뀌고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긍정의 힘으로 꿈을 이뤄낸 것이다.

■ 설레던 아이들과의 첫 만남

2012년 3월, 첫 수업을 앞두고 그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많은 고민을 했다. 팔이 불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진 않을까하는 걱정에서였다.

고민 끝에 그는 아이들과 처음 대면하는 날 평생 껴 본적 없는 의수를 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수업을 했다고 한다. 본인이 장애를 얻기 전 사진과 얻은 후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며 장애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리고 의수를 뺐다 껴다하는 모습도 직접 보여주며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보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이들도 금세 마음을 열고 친근하게 다가와 줬다. "앞으로 체육수업을 가장 잘

이웃사랑 실천하는 새보람 요양병원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 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내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운영하고 있는 새보람 요양병원은 장애인 행사 의무대 활동지원, 장애인 방문의료서비스, 복지관과 협력한 지역연계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작년 5월부터는 지체장애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형외과

이 외에도 병원생활에 무료해지기 쉬운 환지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웃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새보람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방과



장애인 행사 의무대.



맞춤식 재활치료 프로그램.



웃음치료.



어버이날 행사.

대표전화 02.3492.7888



서울시, 장애아동 보육환경 지원체계 마련

장애아 보육도우미 · 편의시설 설치비 등 지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장애아동들이 차별 없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 계획’을 1월 30일 발표했다.

‘장애아동통합보육환경 조성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 6명 이상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110개소 어린이집에 129명의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

미취학 장애아동이 6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1명, 15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2명의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지원되며 이들은 장애아동의 활동보조 및 장애아 보육교사의 수업준비를 돕게 된다.

또한 올해 장애아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된 곳에는 경사로 설치, 화장실 안전바 설치 등에 필요한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

를 어린이집 1개소당 최소 5백만원에서 1천만원 까지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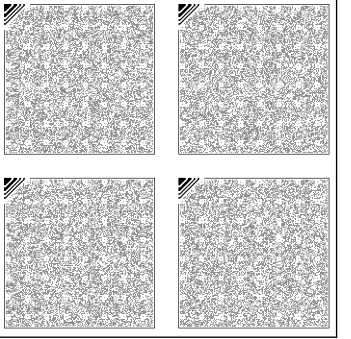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장애아동 1인당 지급되는 월 2만 1천원의 교재교구비를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1630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장애아동 9명당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치료사의 인건비도 기존 143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해 175만원 전액 지원한다.

이밖에도 장애아동을 보육하

고 있지만 기준 인원에 미달돼 치료사나 특수교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한 어린이집과 집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순화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 장애아동 보육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단 한 명의 장애아동도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을 조성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양적 충족과 함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보육의 질적 서비스도 함께 높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적합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호남권역 재활병원 본격 운영 돌입

복구 본촌동 소재...언어 · 물리치료실 등 갖춰



1월 23일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청

장애인 재활을 위한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1월 2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했다.

복구 본촌동에 위치한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총 156병상 규모로 언어치료실, 소아작업치료실, 소아물리치료실, 열

전기치료실, 성인작업치료실, 성인물리치료실, 심폐재활실, 수치료실, 스포츠센터 등이 마련되어 있어 회복수준에 따른 단계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임시로 짧은 기간 운영했는데도 일반 병원과 달리 장애 유형에 따른 단계별 치료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 570여종을 갖추고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 관계자는 “재활병원에서는 재활 관련 치료와 교육, 장애인 질환 상담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국비 확충...지원센터 4개소 운영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중증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개소만 운영해온 것과 관련해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따른 것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4개 기관은 3년 동안 매년 1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아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자립기술 훈련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개정되면 시의회와 협의해 가급적 다수의 중증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군, 저소득층 현실적 지원 눈길

복지지원 확대 및 혜택기준 완화

장성군(군수 김양수)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펼쳐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최저생계비가 지난해 대비 3.4% 인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를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비를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확대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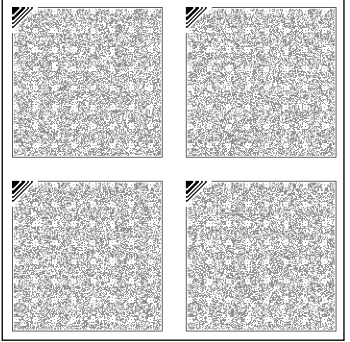
또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너무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한층 완화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

육과학기술부 교육비 지원을 확대, 현재 읍·면에 신청 및 접수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을 한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꼼꼼하게 보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주민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구시,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확대

집수리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 등 추진

대구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 ‘영구임대APT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주택 전세 후 재임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랑의 1000호 집수리사업’은 개인, 기업, 기관 · 단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또는 현금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소유자,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도배 · 장판,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등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올해 400호 집수리 달성을 목표로 2월 말까지 수요조사와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영구임대APT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영구임대APT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도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예정자 중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등 100가구를 선정해 임대보증금의 50%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기간은 2

년으로 원금을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전세 후 재 임대사업’은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주택에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100호를 목표로 상반기 내 입주예정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29억 원을 투입해 노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시설을 개선해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기존 다가구주택 매입 · 임대사업’도 실시한다.



2014년 준공 예정인 원주시 장애인 체육관 조감도. ©원주시청

원주시, 도내 첫 장애인 체육관 건립

오는 3월 착공...2014년 준공 목표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구 우리환경부지에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3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2월 8일 밝혔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규모로 들어서는 장애인 체육관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된다.

원주시는 이번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에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설계에 반영,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립되는 체육관은 도내 유일의 장애인 체육관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응용훈련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여가활동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장애인 체육관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해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동북부권 도시군 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행

2016년까지 법정대수 확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석 · 이하 세종시)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덜고 건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1대를 추가 구입해 2월 4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직접 탑승할 수 있도록 경사로형 탑승장치와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월 평균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콜택시 보유대수가 적어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장거리 출퇴근자나 급히 불일이 있는 장

해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장애인콜택시는 세종시에 주소 둔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 콜센터(☎ 044-866-2220)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운행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말엔 사전예약만 운행)까지이며 이용요금은 1.5km까지 1,200원, 1.5km 초과 시 매 107m마다 50원이 가산되는 등 일반택시 요금의 50% 수준이다.

하동군,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하동군(군수 조유행)이 몸이 불편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을 운영한다고 2월 5일 밝혔다.

하동군은 2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횡천면 복지회관 1층을 장애인 목욕탕으로 개 · 보수하고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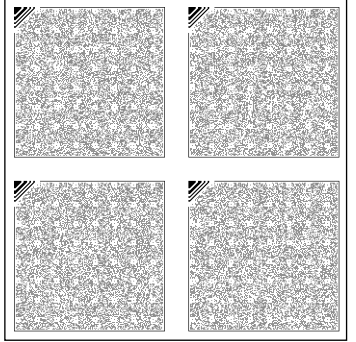
또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콜택시, 심부름센터 차량 등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목욕탕 개장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관내 1급~3급 장애인은 자원봉사자 또는 가족과 함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목욕탕을 개장한 만큼 장애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I

새보람 2월호부터는 그동안 장애인편의시설 중 가장 민원이 많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부터 현실적인 부분까지를 낱알이 훑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 나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하니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제도를 두 개의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체에 대한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설치대상만 다를 뿐 실제로는 거의 편의증진법을 따르고 있음)이, 또 하나는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로써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율, 즉 특정시설의 총 주차대수 대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얼마인지를 말하는 설치율과 해당 공간의 크기나 폭 등에 대한 공간규격에 대한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의 발급대상, 절차 및 표지 남용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필요성은 장애인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본시 움직이는 동물로써 이동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동본능과 떼어 수 없는 관계가 교통(transportation)이며,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통은 사람에게 있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교통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오고 가는 일 또는 서로 떨어진 지역 간에 있어서 사람의 왕복, 화물의 수송, 기차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일의 총칭이라고 하고 있다. 보행에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이동을 함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는 지팡이나 목발 나아가 휠체어만으로 충분하지만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서의 개념을 넘어 이동을 담보하는 신체의 일부이며,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편의시설 설치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요원한 대중교통이나 주변의 생활환경을 볼 때 대다수의 장애인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동과 주차를 모두 일컫는 것인 바, 이동과 관련하여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LPG 할인주유권이 있었으며, 10부제 적용 제외라든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의 제도, 주차와 관련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제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오직 장애인 본인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사람과 보호자로서 보행장애인을 동승시킨 사람만이 주차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그 현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를 위주로 살펴본 후에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해 보기로 하자.

■ 장애인자동차표지제도

1. 발급 목적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장애인이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펴는데 편리하

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법 제39조)와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그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할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따로 표시하여 발급하도록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8조).

경제적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과 자동차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권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발급 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다만 독거장애인의 경우 본인 명의 차

량에 한하여 보호자용 표지 발급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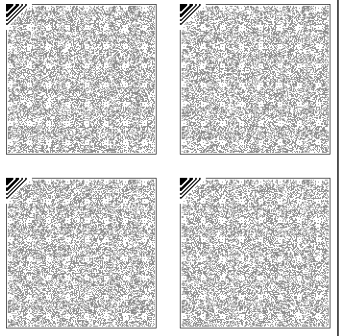
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마.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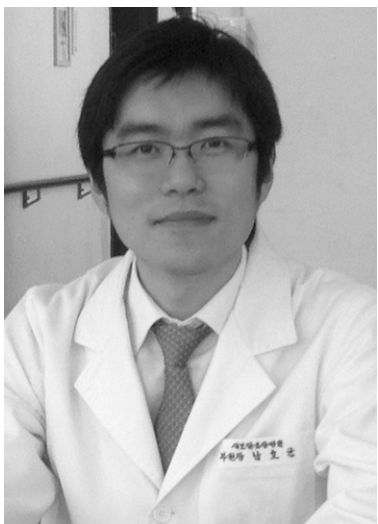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홍 현 근**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정월대보름, 봄의 기운을 먹다

새보람요양병원 제2진료원장
남호균 (한의사)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가고, 어느덧 아침 출근길 공기 속에는 봄의 향기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콧속을 스쳐가는 봄의 향기, 창가에 사뻏히 내려앉은 따뜻한 햇살, 길고양이의 졸린 눈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속에 숨어있던 씨앗들도 추운 겨울이 갔음을 알고,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듯, 우리의 몸도 봄이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우리 선조들은 음력 1월의 첫 보름달을 정월대보름이라는 명절로 정하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오

곡밥, 어른들이 주시는 귀밝이술, 제 주먹만 한 호두를 킁킁대며 깨어 물고는 형제들한테 의기양양 자랑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 정월대보름 음식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그런데 정월대보름에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진채식을 먹는 데에는 우리 선조들의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줄어들었던 신진대사는 증가하게 되고, 체표로 가는 혈액량은 늘게 됩니다.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잎을 떨어트리고 영양분을 저장하듯, 사람도 겨울을 나기 위해 잔뜩 움크리고 피부로 가는 혈액과 신진대사를 줄이는데, 봄이 되면서 줄어들었던 대사가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대사가 활발해지며 체표로 가는 혈액이 풍부해지는 대신 뇌로 가는 혈액은 부족하게 되고 이 때문에 자주 졸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봄철에 자주 겪는 춘곤증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봄철에 일어나는 이런 몸의 변화를 우리 선조들은 알아차리고 대보름에 오곡밥과 진채식 9종 나물 및 각종 견과류를 먹어 자칫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여 신진대사의 원료를 보충하고, 귀밝이술로 신진대사

를 올려주는 지혜를 담아내었습니다.

■ '붉은 팔'과 '두릅'의 효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실외활동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겨울철 대사량이 더욱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체내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월 대보름 잡곡밥에 붉은 팔을 넣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붉은 팔은 한의학에 적소두라 하여 체내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곡밥으로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함과 동시에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애인분들에게 많은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증후군에 좋은 두릅을 반찬으로 곁들이면 좋습니다. 두릅은 봄의 인삼으로 사포닌 성분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혈압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을 뚫고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반찬입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3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가 전국 지장협 회원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으로 전달되길 기원해 봅니다.



노폐물 배출에 좋은 붉은 팔.



대사증후군에 좋은 두릅.

법률정보

황운상 (변호사)



Q) A는 10년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여 드디어 자기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5년 전에 B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고, 1년 전에 C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A는 위 사실을 이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고 확인한 다음 C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집을 매수하였고 A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B가 갑자기 나타나 이 집의 소유권자는 B인데 C가 서류를 위조하여 C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C가 A를 속여 집을 팔아먹은 것이라며,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하고 산 A는 이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우리 법은 부동산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 등본을 믿고 거래를 하였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 등기부 등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 및 입증한다면, 비록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등기부 등본을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 하더라도 등기를 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부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경우 A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A 단독으로 또는 A와 C를

함께 10년 이상 해당 부동산에 등기를 하였고, 또 10년 이상 점유를 한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해 B에 대항할 수 있으며 A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A는 본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사기를 친 C의 경우 이미 종적을 감추었거나 소재가 파악되었다도 손해배상을 할 만

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그 피해는 A가 고스란히 지게 되므로 결국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직접 방문하여 매도인이 실소유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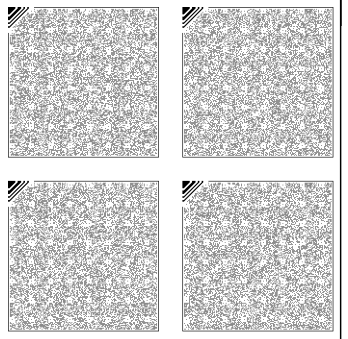
한편, 부동산 실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인 양 사기를 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였는데 실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였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도 일정부

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등기관리증까지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등기관리증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의 경우처럼 공적장부인 등기부까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잘못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결국 대상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변호사 황운상 : 전화번호 (042) 488-4141 팩 스 (042) 488-4131

소리로 읽는 새보람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Q) 장애인에게 왜 징병검사 통지서가 나오는지요?

A)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본인의 면제신청이 없어도 보건복지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를 조회·확인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면제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병검사 전일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는 경우에 병역면제나 제 2국민역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면제처분을 하거나 서류출원만으로 병역면제 처분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10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1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2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3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4호)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5호)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6급6호)

▶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1호)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5급 6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장애등급 6급 5호)

▶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장애등급 6급 1호)
- 성장이 멈춘 만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cm 이하인 사람(장애등급 6급 4호)

▶ 시각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장애등급 4급 1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장애등급 4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장애등급 5급 1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장애등급 5급 2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장애등급 6급)

▶ 언어장애인

-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등급 4급)

▶ 안면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장애등급 4급 1호)

※ 징병검사 관련 문의 : 병무청 징병검사와 ☎ 042-481-294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립니다

진주시, 전국 최초 장애인 일자리타운 조성

장애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진주시가 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일자리타운’을 조성한다.

진주시는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 내에 32억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건축면적

1,653㎡(500평)의 ‘장애인 일자리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1월 17일 경남도개발공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타운’은 오는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내년 3월 착공,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장애인 일자리타운’이 본격 가동되면 시설 노후화 및 작업 공간 협소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일송보호작업장을 확장 이전해 근로작업장으로 전환, 3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과 소비가 안정화되어 있는 쓰레기봉투 제작 시설을 건립해 장애인 10명 이상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봉재 및 전자제품 조립 여성장애인 전용 보호작업장을 건립해 장애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도 힘써나갈 방침이다.

충청남도, 커피점 사업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

장애인이 직접 이끌어가는 ‘희망카페’

충청남도가 커피점 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남도는 1월 21일 장애인 7명이 직접 이끌어갈 커피점 ‘희망카페’ 오픈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청 본관에 위치한 ‘희망카페’에서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커피, 과자, 빵 등을 판매하며 중증장애인 생산

품 전시와 기능미화 서비스(구두 닦이)도 실시하고 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희망카페’는 장애인 중심 복지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희망카페의 첫 발은 미약하지만 2호점, 3호점으로 점포수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딛고 설 수 있는 탄탄한 발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 사단법인 한빛회를 운영주체로 선정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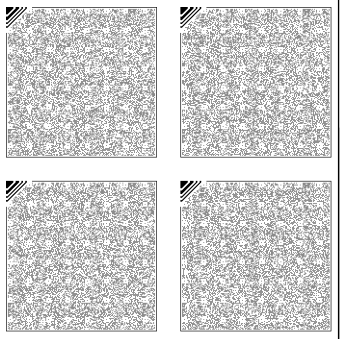


충청남도청 본관에 문을 연 ‘희망카페’ 전경. ©충청남도청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미화직	(주)인영종합관리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무관	은행 미화직	월 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2	서비스직	(주)선정인터내셔널	서울시 종로구	40세 이하	여	아웃바운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5세 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사무보조직	금음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50세 이하	무관	사무보조 및 행사지원	107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운전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아파트 수목 소독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경비직	(주)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건물 경비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경비직	(주)오투기토탈시스템	서울시 중구	62세 이하	남	건물 경비직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9	생산직	모던조이	서울시 중랑구	40세 이하	무관	미싱보조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0	생산직	유니프라임	경기도 부천시	45세이하	여	조립업무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생산직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인쇄사업단	서울시 영등포구	45세 이하	남	인쇄관련 단순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3	생산직	(주)성원공조	서울시 성동구	40세 이하	남	닥트제작 및 조립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4	생산직	미주산업	서울시송파구	45세 이하	무관	액세서리 조립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서비스직	(주)코스트코	경기도 고양시	-	무관	대형마트 (진열, 캐시, 안내 등)	시급 8,200원	4대보험	02-2289-4322
16	서비스직	(주)신앙이엔지	서울시 노원구	50세 이하	남	건물 주차경비원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7	전문직	한솔기획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이너	면접 후 결정	4대보험	02-2289-4321
18	전문직	디자인여백	서울시 영등포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이너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사무직	(주)TLS정고려인삼	서울시 서대문구	50세 이하	무관	자료 엑셀입력작업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현대차, ‘2013년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 실시 장애인 분야 16개 포함 44개 복지사업 선정...지원금 전달



현대차가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할 사회복지사업을 새롭게 선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함께 움직이는 세상’ 만들기에 나섰다.

특히 기존 장애인, 노인, 아동 및 청소년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공모사업에 올해 이동편의 제공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시킨 이동복지분야를 신설하는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홈페이지(<http://csr.hyundai.com>)를 통해 ‘2013년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 접수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700여 개 복지사업이 접수됐으며 최종적으로 ▲장애인 분야 16개 ▲노인 분야 14개 ▲아동 및 청소년 분야 12개 ▲이동복지 분야 2개 등 총 44개 복지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이동식원예사업 ‘달리는 유코가든’(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외된 농촌지역 어르신께 웃음과 행복을 전달하는 이동복지차량 ‘행복드림카’(옥천

군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이동복지분야의 2개 사업이 선정됐다.

현대차는 1월 1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회사 관계자 및 공모사업 심사·자문단, 사업 선정기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4개 사회복지사업 선정기관 관계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향후 1년 동안 지속적인 자문과 실무자간 네트워킹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담당자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업 진

행을 독려하고 향후에도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은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현대차와 사회복지단체가 힘을 합하는 기업 사회공헌의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최근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이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에 역점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함께 움직이는 세상 공모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4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은 28억 원에 이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지로, 자동이체 CMS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① 전화신청 : ☎02)796-4280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3년 1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석, 김구환,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기석, 남용원, 노승화, 류재복, 박소연, 박종형, 반형만, 서석범, 선병욱, 우병훈, 원종빈, 유채환, 이은정, 임채중, 장은정, 정다운, 주명희, 주승운, 주영례, 하정미, 해피빈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
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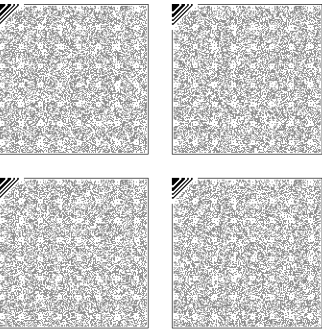
정답
힌트

입학할 때에 신입생을 모아 놓고 행하는 의식.

1★	2★			5		
			7★		6	
	3	4				
					10	★
	5					
		6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계	급	2장		3신	지	4식
		마		학		별
	5전	철		6기	7근	
	시				하	
8대	회				신	
★사			9재	작	★년	
10관	엽	식	물			

당첨자

1월호 정답

게사년

김영신 경남도 거창읍 양평리
이순기 경기도 가평군 음내리
김기창 서울시 강서구 상계동

| 가로열쇠 |

1.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 음력으로 정월의 절기이고,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 보통 양력 2월 4일경에 해당. 동양에서는 이 날부터 봄이라 한다.
3.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각지의 동물을 관람시키는 곳. 일반인에게 관람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동물에 대한 애호 정신을 기르면서 오락 및 휴식을 제공한다.
5. 신주를 모시고 있지 않는 집안에서 차례나 기제사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
6.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한 가족의 가장 중심이자 가정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 남자 아버이를 이르는 말.
7. 일정 범위의 학습 결과에 대하여 얻어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10.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알아냄. 또는 그런 식견.

| 세로열쇠 |

2.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네 계절.
4. 물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곡식을 찧는 방아.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는 것과 흘러가는 힘을 이용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7. 학교 설치 기준의 여러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립 교육 기관. 교과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체능 교육을 행한다.
8.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지난 2월 4일 부터 5일 까지 충남 보령
시 비체팰리스에서 열린 '2013년 시도지
회 사무총괄자 직무교육'에서 참가자들
이 분임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
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종합민원상담실

“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은
장애인 생활고충 상담
장애인 복지정책 정보 제공
장애인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 운영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 전화상담 : 02) 796-4280
- 온라인 상담 : <http://www.kappd.or.kr>